시원하게 하나님 한잔

(스가랴 10:1~12)

1.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2.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 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3.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4. 모퉁잇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5. 싸울 때에 용사 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 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시원하게 하나님 한잔>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시원하게 하나님 한잔'
저는 개인적으로 콜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콜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탄산음료를 별로 즐기시지 않는 분들께는 별 의미가 없을 콜라입니다만 최근에 쓸모가 있었습니다.
요새 저희 집에 이런 저런 공사가 있었는데 15년 된 보일러가 물이 새서 교환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최근 방송하는 방을 고쳤습니다. 이전에는 단상을 두고 방송 스튜디오 형식으로 되어있던 방을 뜯어내고 일반 방으로 바꾸고 도배를 하였습니다.
이때에 일하시는 분들은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데 집사람은 콜라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물보다 콜라를 더 좋아하십니다. 갈증이 생기면 물을 원하기 마련이지만 반드시 물로만 갈증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다나 콜라를 마실 수도 있고 과일이나 채소라도 갈증은 해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의 갈증을 모조리 대체하는 궁극적 해결책으로써 하나님이 제시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봄비는 우리나라와 달리 늦은 비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따라서 10~11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이고 이듬 해 봄 4월 추수 때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내려야만 곡식이 잘 여물 수 있습니다.
농부들이 비에 대해 느끼는 갈증은 우리의 삶 전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증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삶의 갈증에는 그에 맞는 해소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다양한 갈증의 완벽한 대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우리의 갈증 해소의 해결책으로 제시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봄비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돈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갈증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의 대체물로 당신 스스로를 제시하십니다.
사실 돈을 버는 것만으로 갈증은 완전한 해소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돈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채워주질 못하기 때문에 갈증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한 잔 들이키게 되면 우리의 갈증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의 갈증을 완벽하게 대체하시고 마음을 채우시니 다시는 갈증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갈증이 생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스스로에게 “시원하게 하나님 한 잔 하자!”라고 권해야 합니다. 이 마음가짐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의 갈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갈증을 느낄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갈증 해소의 대체물로 삼는다면 삶은 복지가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한다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내가 돈에 대해 갈증을 느낄 때에 돈을 벌어서 갈증을 해소하려 한다면 돈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형통에 대해 갈증을 느낄 때에 내 생각대로 자녀를 닦달해서 성공이라는 길로 이끌려고 한다면 자녀의 형통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외로워서 이성에 대한 사랑이 그리울 때에 결혼을 해서 갈증을 해소하려 한다면 결혼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돈에 대한 갈증이 생길 때에 시원하게 하나님 한잔을 합니다. 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결혼하여 상대방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혼에 대한 갈증이 생길 때에도 먼저 시원하게 하나님 한잔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12절의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삶에서 갖가지 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 갈증을 해소시키는 대상으로 믿어지는 것들을 추구함이 곧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모든 다양한 갈증의 순간에 시원하게 하나님 한 잔을 함으로써 갈증을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예로 나라를 생각해봅니다. 나라를 바라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도 되나 싶고 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갈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는 아닙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 나라의 형통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선 시원하게 하나님을 한 잔 들이킴으로써 마음의 갈증을 없앨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갈증 해소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정작 본문 말씀에서는 비를 구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봄비와 관련된 말씀이 계속 이어져서 7절에 결론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으로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왜 비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오늘 본문처럼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대해 언급되는 부분이 여러 곳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14절을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또 이어지는 15~16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라지 않았던 풍성한 수확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요엘서 2장 23~24절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찌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두 말씀이 모두 오늘 스가랴서의 1절 말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비는 하나님이 때를 맞춰 주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왜 직접 구하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해야 했던 이유가 다음 절에 나타납니다.

2절을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 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드라빔은 집안에 두는 수호신입니다. 즉 집안일이나 가족들에 관계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준다고 믿어지던 우상이었습니다.

선민들은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얻기 위해 이방인들이 믿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민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는 성전도 없었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수호신인 드라빔을 따로 두고 비가 내리도록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바벨론은 천문학과 점성술이 발달한 나라였기에 복술자들이 많았습니다. 선민들도 이러한 복술자들을 찾아가 점을 치고 비가 내릴지를 물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드라빔 숭배나 복술자들에게 점을 치는 행위는 다른 우상숭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비가 올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기 위한 거짓 위로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1절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늦은 비나 이른 비의 갈증을 느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듯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증의 해소를 결정하시는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갈증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 갈증을 느낄 때에 서점에 가서 수많은 책들을 뒤지며 재테크 방법을 연구합니다. 건강에 대해 갈증을 느낄 때에 건강에 대한 모든 책들을 찾고 온갖 건강식품을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갈증을 무조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갈증을 해소시키겠다고 세상에서 답을 추구하는 것은 드라빔을 섬기고 복술자들을 찾아가 점을 치는 것처럼 허황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거짓말로 위로를 주겠지만 그것은 결코 갈증의 해소는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1절의 말씀은 단순히 비를 달라고 구하라는

의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어지는 3~5절에서는 앞선 말씀과 다른 분위기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 모퉁잇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 싸울 때에 용사 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 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씀 뒤에 이러한 말씀이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국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공통적인 관심거리는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성전의 존재의미를 완성시킬 메시아 출현에 대한 예언을 해왔습니다. 3~5절 말씀도 메시아 출현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출현은 곧 이 세상 삶의 모든 갈증이 사라질 것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성전의 존재의미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과거에 성전을 생활화했듯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활화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갈증이 사라지리라는 약속입니다. 그 대표적인 갈증의 대상이 봄비로 언급되었습니다. 삶에서 봄비와 같은 갈증이 생길 때마다 복술자나 지혜자를 찾거나 드라빔을 섬기는 등의 허황된 해답을 찾지 말고 진정한 해답이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3~5절의 모습입니다. 마치 강력한 군대와 같이 거침없는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강력한 군대가 언급 된 이유는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유약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황무지가 되어버린 땅에 성전을 재건해야만 하는 임무를 안고 있었지만 의지할 터전이 없는 이들의 삶은 위태로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바랄 수도 없었던 강력한 군대와 같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갈증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갈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유다 백성의 공통적인 갈증은 나라와 민족의 안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갈증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나라와 민족을 붙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갈증을 해소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성 앞에서 나의 적극성과 자발성은 무색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의 삶에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준비가 되어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갈증을 느낄 때마다 먼저 시원하게 하나님 한 잔으로 갈증을 해소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갈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극성을 보여야 할 대상은 갈증이 아니라 갈증의 대체물로 자신을 제공해주신 하나님입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즐거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 들이는 것입니다.

다만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찬물을 끼얹으려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삶에 갈증을 느끼도록 하고 세상일들에 적극성을 발휘하게 합니다. 마귀의 꾐대로 우리가 스스로 적극성을 발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갈증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적극성을 발휘하실 수 없고 오히려 적극성을 발휘하는 나를 문제 삼고 나를 바꾸기 위해서 적극성을 발휘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드라빔에게 가서 절하든지 복술자에게 가서 답을 찾으려 했던 선민들의 행동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삶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적극성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적극성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 벌어지게 될 일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갈증 자체가 생기지 않는 삶이 주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갈증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드라빔이나 복술자를 찾듯이 이 세상의 지혜나 방법을 쫓아서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의 연결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는 곧 나의 삶에 대해 하나님이 결정권자가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느끼는 문제들에 대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선민들이 성전을 재건해야만 했던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성전의 생활화는 우리에게 있어서 곧 예수님의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나의 적극성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갈증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으로 한 잔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7절을 봅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삶의 갈증을 하나님으로 해소시킬 때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것이고 갈증이 일어나는 상황을 바꾸어 가시리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 복음 자체에 얹힌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시는 동안 많은 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증을 스스로 해소하고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갈증의 결정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재건이 의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삶의 갈증에 대해 적극성을 띄려는 나를 죽은 자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적극성을 띄면 하나님의 적극성에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나는 오직 하나님에 대해

서만 적극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7절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원하게 하나님으로 한 잔 하는 동안 내가 갈증을 느꼈던 세상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적극성을 띄시며 일해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농부가 봄비를 갈증 나 하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먼저 시원하게 하나님 한 잔을 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갈증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함으로써 삶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나의 마음이 죽게 하여 주시고, 나의 적극성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